

기업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은 물론 고객이지만 성숙한 기업일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기여에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이 1958년, 「국민교육진흥」과 「민족자본형성」을 창립이념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미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보생명은 창업 이래 45년간 생명보험 사업을 통해 '삶의 역경 극복을 돕는 일'을 해 왔지만 앞으로도 이 사업을 좀 더 깊고 높고 크게 실현하기 위해 2001년 <교보인의 비전>을 만들어 대내외에 선포했습니다. 여기에서 교보생명은 "모든 사람이 삶의 역경을 극복하여 보람있는 인생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업의 본질로 규정하고, 교보생명이 존재하는 한 영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추구해야 할 기업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 이윤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기업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이윤추구를 뛰어넘어 사업의 궁극적인 본질, 즉 '업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보생명은 2002년 12월 영리사업인 보험업과는 다른, 차별화된 비영리사업을 하는 「교보다솜이」사회봉사단을 창단하였습니다. 그동안 교보생명은 공익재단 운영, 국민체육진흥과 문화예술 진흥사업 지원 및 각종 사회단체를 지원하며 기업의 본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금번 「교보다솜이」사회봉사단을 창단한 것은 기존의 사회공헌활동을 계승·발전시키고, 좀 더 체계적인 공익사업의 추진을 통해 삶의 역경 극복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이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들이 존중되고 실현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교보생명 사회공헌활동 홈페이지>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각종 공익사업을 소개하고, 「교보다솜이」사회봉사단을 통해 앞으로 전개해 나갈 사회공헌활동을 널리 알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교보생명의 사회공헌활동은 「교보다솜이」사회봉사단을 중심으로 건강, 돈, 지식 등의 결핍으로 인해 역경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사업에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110여 개의 자원봉사팀과 회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범적인 사회봉사활동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보생명에는 '이해타산 없이 고객에게 먼저 베풀다'는 정신인, 교보만의 FP(Financial Planner)-Ship이 있습니다. 교보생명의 모든 직원들은 FP-Ship을 실천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삶의 역경에 좌절하지 않고 소중한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보다솜이」사회봉사단장 신왕재

[교보인의 비전과 사회공헌 활동]

“교보다솜이”의 ‘다솜’이란 우리나라 교유의 말로써 ‘닷다’, 즉 ‘사랑하다’의 명사형인 ‘사랑함’이란 뜻이다.

「교보다솜이」사회봉사단은 “모든 사람이 삶의 역경을 극복하여 보람있는 인생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회사의 경영이념을 적극 실천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하여 2002년 12월에 창단되었습니다.

‘교보다솜이’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보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교보인 모두가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건강, 노후생활, 교육복지의 3대 분야를 핵심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원 퇴소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지원, 무료 간병 봉사단

운영, 노인 은퇴생활 지원 프로그램, 소아암·심장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외국인 여성노동자 교육지원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 사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회사에서 개인의 후원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여 사랑의 펀드를 조성한 후 소년소녀 가장을 지원하는 결연사업인 ‘사랑의 떠있기’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등 나눔의 문화 전파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6·25전쟁 이후 처참한 현실 속에서 당장의 경제적 가치만이 중요시되던 1958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국민의 교육과 삶의 질까지 생각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국민교육진흥」과 「민족자본형성」이라는 창립이념으로 문화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교보생명! 인류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남보다 앞서 깨닫고, 최초로 <교육보험>을 창안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교보생명은 그 출발부터 단순한 이윤추구가 아닌

‘인간’ 그 자체에 중심가치를 두었습니다.

교보생명의 인간 중심 철학은 지난 반세기에 걸쳐 우리 사회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해왔으며 “모든 사람이 삶의 역경을 극복하여 보람있는 인생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경영이념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교보다솜이」사회봉사단을 창단하여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교보문고」 외에도 「대산농촌문화재단」, 「대산문화재단」,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등의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나름대로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보다솜이 창단 선언문]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건강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는 지구촌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제 가족사랑, 이웃사랑, 인간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기업이 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교보다솜이」 사회봉사단을 창단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건강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교보다솜이」 사회봉사단은 “모든 사람들이 삶의 역경을 극복하여 보람있는 인생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하는 교보생명의 핵심목적과 맥을 같이하여, 건강, 노후생활, 교육복지 분야 등 교보생명의 업의 본질과 관련된 사회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앞당겨 실현함에 있어 최대한 효율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이러한 「교보다솜이」 사회봉사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이에 참여하는 교보인 개개인의 인간적인 성숙과 삶의 질 향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건강한 사회, 함께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함은 물론 기존의 사회공익적 기업으로서의 회사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고객, 사원, 투자자, 지역사회 등 우리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 12월 11일

「교보다솜이」 사회봉사단장 신 창 재

* 교보생명 사회공헌활동 백서 원고 참고자료

<* 참고자료 *> 아름다운 파트너십

최근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아름다운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이들 기업을, 우리는 기업시민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사회공헌 사업을 전담하는 팀을 조직내부에 신설하고,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며,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아낌없이 기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 공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지금까지 사회의 소외계층과 공익을 위해 묵묵히 일해오고 있는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 단체의 재정은 대부분 열악한 상태에 있고, 활동가들은 활동비에도 못 미치는 박봉과 고된 업무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는 신념 하나로 힘차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서 이들을 누구보다도 잘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과 기업시민들이 만나서 함께 사회공익을 위해 노력할 때,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사회 곳곳의 소외된 여성들에게 힘과 희망을 주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딸들도 아들들과 함께 21세기 한국을 떠받치는 기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 딸들의 밝은 미래를 열기위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아름다운 기업시민들이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보생명은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서 저희 재단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보생명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소외계층인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을 위하여 재단에 지정 기탁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짧은 여행, 그리고 긴 호흡 여성공익활동가 연수 프로그램 공모전을 통해서 여성공익활동가들에게 소진된 심신의 피로회복을 위한 재충전과 활동가들간 자매애 증진을 통하여 여성공익활동가로서의 비전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또한 활동가들 뿐 아니라 민간단체 자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펌프로젝터를 기탁하는 등 일회적인 사업비 지원을 넘어선 관심과 배려로, 수혜단체의 상황을 살피고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보생명의 지원은 이상적인 기업-민간단체 파트너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보생명은 본 재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단체들과 아름다운 파트너십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삶의 역경을 극복하여 보람 있는 인생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는 교보생명의 경영이념을 적극 실천하면서 사회의 구석진 곳에서 지금도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교보 다움이 사회봉사단과 모든 임직원들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